

# 여성의 성숙과 독립

## Maggie Tulliver와 Gwendolen Harleth의 경험 비교

한 기 옥

Ⅰ George Eliot의 소설은 거의 어김없이 창조적인 삶을 열망하는 여성들이 당대 사회의 여성억압구조하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시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 위대한 여성소설가에 의해 실감나게 묘사된 당대의 여성현실이 오늘날 여성해방론적 비평가들의 구미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George Eliot가 당대의 어느 작가보다 여성문제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의식을 작품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전체 구조에서 드러나는 여성문제 해결의 입장은 결국 당대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귀착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이념에 대한 정면도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찮게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George Eliot의 여성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봉쇄전략(strategy of contain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풀이한 Deirdre David는 여성의 지성과 남성의 권위간의 갈등이 *The Mill on the Floss*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봉쇄전략도 가장 문제적(problematical)으로 나타난다고 하며, Maggie Tulliver는 당대 가부장제에 대하여 한편으로 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체제에서 성공한 작가 자신의 딜렘마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불가능한 이데올로기간의 모순을 짚어준 Maggie는 작가의 봉쇄전략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up>1)</sup> 확실히 이같은 견해는 여성해방론적 비평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참신한 통찰력을 제시하며 작품구조나 내러티브 속에 깃든 또 다른 의미층을 발굴해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더우기 이같은 분석은 여성의 창조적 삶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반발감이 작품의 형식적 외양을 크게 위협하는 듯한 *The Mill on the Floss*에 잘 들어맞는 비평적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eirdre David가 제시한 방법론인 “봉쇄전략”이 George Eliot의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가의 여성문제에 대한 입장이 작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문제, 특히 작가의 양면적(ambivalent) 태도가 Maggie Tulliver의 죽음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여기서 “봉쇄전략”에 담긴 방법론적인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한 분석 결과가 작품의 가치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여성문제에 대하여 작가가 얼마나 성숙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냐는 문제는 작품의 가치를 드높이거나 혹은 저해하는 한 요소로——사실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작용할 수 있으니<sup>2)</sup> 작품에 담

1) Deirdre David, *Intellectual Women and Victorian Patriarchy*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12장 참조.

2) Wayne C. Booth가 “Freedom of Interpretation: Bakhtin and the Challenge of Feminist Cri-

긴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사상하고 오로지 여성문제에 대한 작가의 인식 정도나 정치적 입장에 주목하여 작품을 평가하는 방식은 자칫 엉뚱한 결론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sup>3)</sup> 때문이다.

또한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을 가부장제 하나에만 국한시켜 고찰할 때 작품에 드러난, 여성인물들이 속한 계급적 조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계급적 속박이 가부장제 못지않은 여성억압의 근본적 요인임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두 요인이 엄연한 독자성을 지닌 두가지 개념적 범주이되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띠고 나타남을 간과하는 것이 여성문제의 복합적 양상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관건이 된다. 이때 실제적인 난제로 제기되는 것은 가부장제와 계급적 조건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지난한 문제이다. 이 어려운 작업에 직면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분분하다. 다만 가부장제 자체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그 뿌리는 자본주의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가지만 그것이 물화의 완전한 실현으로 나아간 자본주의의 전도된 가치체계에 의하여 심화·증폭·확산되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물론 이 경우 그 심화·증폭·확산되는 구체적인 양상은 계급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나 계급적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막연한 가부장제의 이름하에 여성 일반의 억압양상을 모두 포괄하는 방법은 근대자본주의사회의 다양한 억압 요소들의 '복합체'로서의 여성문제를 통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계급적 성격에 의한 세심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무차별적인 가부장제 개념에 근거한 여성문학비평론은 George Eliot가 작품 속에서 깊이 천착한 "여성의 성숙과 독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초역사적인 여성해방론은 자칫 잘못하면 George Eliot의 작품 속에 구현된 여성문제를 그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서 떼어내어 20세기 후반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Sandra M. Gilbert와 Susan Gubar의 *The Mad Woman in the Attic*은 그 야심찬 여성해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가치에 대한 무원칙적 접근방식과 아울러 역사적·계급적 중요성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오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19세기 영국사회에서 어떠한 여성이건간에 여성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개인은 있을 수 없으나 그 여성이 어떠한 계급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억압의 관찰방식과 억압구조의 메카니즘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시골의 하층중산계급(쁘띠부르즈와지) 공동체에서 전개되는 Maggie Tulliver의 통렬한 경험과 주로 상류사회의 여성억압, 특히 Grandcourt의 지배·정복욕을 체험하는 Gwendolen Harleth의 섬찍한 경험을 비교하면 각각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억압의 상이한 양상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② George Eliot의 여성문제 탐구에서 매우 특징적인 측면은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열망하는 작중의 여성인물에게 모진 도덕적 시련을 겪게한다는 점이다. 이 불의 시련을 통

ticism," *Politics of Interpretati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3)에서 예시한 해석방법은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3)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예로 Bonnie Zimmerman, "George Eliot and Feminism: The Case of *Daniel Deronda*" *Nineteenth-Century Women Writers of the English Speaking World* ed. Rhoda B. Natha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를 들 수 있겠다.

과하지 못한 여성에게 좀처럼 독립을 부여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삶의 포기(renunciation)를 강요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 도덕적 성숙을 생취한 인물에 대해서도 창조적 삶과 독립에의 전망을 유보하거나(Romola와 Gwendolen Harleth) 아니면 아예 비극적 파국으로 몰고가는(Maggie의 경우) 작가의 심술궂은 태도에 대하여 Sandra M. Gilbert와 Susan Gubar가 작중인물에 대한 작가의 “보복”이라고 풀이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George Eliot가 도덕적 시련을 통한 여성인물의 성숙과정을 집요하게 파헤친 것은 보편적 휴머니즘의 측면에서만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그리고 여성만의 특수한 문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이 작가의 봉쇄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The Mill on the Floss*에서의 계급과 여성억압의 관련성은 다음의 인용문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가벼운 아이러니의 하늘거리는 날개로 부유하는 상류사회는 사실은 매우 비싼 산물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불쾌한 냄새와 귀머거리 정도의 소음으로 가득찬 공장들 속에 응축된 넓고 힘든 국민적 삶을, 즉 광산 속에 가두어지거나 용광로가에서 비지땀을 흘린다든지 맷돌로 같고 망치로 치고 베를 짜면서 탄산의 압박하에 시달리는 국민적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4)</sup>

But good society, floated on gossamer wings of light irony, is of very expensive production: requiring nothing less than a wide and arduous national life condensed in unfragrant deafening factories, cramping itself in mines, sweating at furnaces, grinding, hammering, weaving under more or less oppression of carbonic acid...

이 대목이 상류사회의 물질토대가 국민대중의 노동에 기반함을 지적한 것이라면 다음 대목은 국민대중의 삶이 “결핍에의 강조”에 전적으로 기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광대한 국민적 삶은, 상류사회와 가벼운 아이러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강요하는 강조, 즉 결핍에의 강조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292)

This wide national life is based entirely on emphasis —the emphasis of want, which urges into all the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good society and light irony...

나아가 국민대중은 이 결핍으로 인한 온갖 힘겨운 노동의 멍에 아래서 뭔가에 대한 뚜렷한 믿음(emphatic belief)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송두리채 박탈당한 Maggie가 Thomas à Kempis의 『그리스도의 모방 *The Imitation of Christ*』에서 자신의 결핍과 조응하는 “가장 깊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목소리”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Thomas à Kempis의 순종의 철학이 당대 빅토리아조의 ‘여성 순화’에 한 몫하는, 여성억압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표현의 일부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Maggie의 내면을 어루만져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험벗은 자에게 ‘체념’이라는 고약을 발라주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Maggie의 깊은 상흔을 치유하는 효험을 받

4)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Oxford: Oxford Univ. Press, 1980) 291-292면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속에 면수만 표시함.

휘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Maggie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은 결코 아니지만 상처받은 영혼만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는 목소리이다.

그러한 목소리의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긴 여운 속에 이끌려 들어옴으로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슬픔을 어린 얼굴에 가득 담은 Maggie는 비로소 노력과 희망을 되찾아, 외로운 세월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며 확립된 권위와 지정된 안내자의 도움 없이 —그것들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았거니와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 긴박한 것이기에— 혼자 힘으로 신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292)

And it was by being brought within the long lingering vibrations of such a voice that Maggie, with her girl's face unnoted sorrows, found an effort and a hope that helped her through years of loneliness, making out a faith for herself without the aid of established authorities and appointed guides—for they were not at hand and her need was pressing.

그러므로 Thomas à Kempis의 저작은, 여성을 체념과 종속의 길로 이끄는 빅토리아 가부장제의 교육적 도구로 작용함과 동시에 Maggie의 계급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결핍감의 깊이와 폭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절박한 결핍감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인 Tom의 독선적이고 경직된(다분히 가부장적인) 도덕성마저 물질적 궁핍에 내몰린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비정한 의지에 의해 강화된 성향이라고 볼 때, Maggie에게 와닿는 형언할 수 없는 억압감은 분명히 상류계급의 여성이 당하는 억압감과 전혀 다른 질감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Maggie를 둘러싼 친척들—예컨대 Dodson가와 Glegg가—의 기만적인 도덕적 결벽성과 물질적 소유욕으로 대변되는 St. Ogg's의 편협한 뽀퍼부르조아적 생활양식은 공동체적 사랑과 충만한 삶에 굶주린 Maggie에게 계급적 억압일 뿐 아니라 성적 억압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의 전통이 Maggie의 지적 자질의 개발과 독립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객관적 요인이라면 편협하고 경직된 뽀퍼부르조아의 메마른 삶은 그녀의 여성적 생명력과 감성을 질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부장제의 전통이 Tom에게는 주어지는 고전교육의 기회를 정작 지적 재능이 풍부한 Maggie에게는 거부함으로써 Maggie의 지적인 자기발전을 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Tom이나 Dodson가 혹은 Glegg가 등의 야멸찬 소유욕 내지 성취욕과 결합된 편협한 도덕성과 각박한 생활양식이 그녀의 감정과 감각을 억누르는 질곡으로 작용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성서에 손을 얹고 Philip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강요하는 Tom의 비정한 태도에서 가부장적 권위와 함께 뽀퍼부르조아적 결벽성 혹은 표독성을 느끼는 것은 결코 막연한 인상만은 아닐 것이다.

George Eliot는 Maggie의 이같은 결핍감이 어릴 때부터의 삶의 조건에서 비롯된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가부장적인 방식이지만 Maggie의 생기발랄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던 유일한 존재인 아버지의 졸도 이후 그녀의 결핍감이 더욱 심화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혹독한 결핍감이 그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았음은 물론이며 그로 인한 고통이 성숙의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자기억제를 통한 체념에의 길로 물고가는 채찍질이 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Maggie가 Stephen Guest를 만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숙의 필요조건인 '자기의 감정에 대한 객관화'에 이르지 못했음을 느낄

수 있다. Maggie의 묘사에서 George Eliot가 “자기탐닉”과 “자기연민”에 빠졌다고 혹독한 비판을 한 F.R. Leavis의 주장<sup>5)</sup>은 따로 따져봐야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Maggie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녀는 이 경향을 완강한 자기단념(self-renunciation)의 의지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예컨대 Maggie의 Philip에 대한 연민과 애정은 정신적 독립을 이룩한 성숙된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갖는 신뢰나 사랑이기보다는 Philip의 섬세한 감수성과 불행한 신체 조건에서 자신의 질은 고립감과 결핍감에 조응하는 요소를 발견하는데 따른 일종의 동질적 연대감에 더 가까운 듯하다.

③ George Eliot는 Maggie와는 전혀 다른 여성억압적 현실을 겪게되는 Gwendolen Harleth의 경험을 통해 상류계급의 여성억압적 구조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여기서 Eliot이 이기주의(egoism)에 대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당대 유한계급의 여성현실의 다층적 구조를 해부하는 솜씨는 실로 대가적 면모라 아니할 수 없다. Gwendolen이 안고 있는 이기주의는 도박의 심리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법칙의 내재화인 동시에 Gwendolen이 유한계급의 여성임으로써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라는 의미에서 계급문제에 박혀있는(embedded) 여성문제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항상 여왕인양 행세하며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Gwendolen의 이기적 행동 속에는 비록 도박의 원리——즉 누구인가의 이익은 바로 누구인가의 손해일 수밖에 없는 원리——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경쟁심과 정복욕에 의해 심히 왜곡되긴 했어도 여성의 자기 실현 욕구가 내포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확실히 Gwendolen에게서 접하는 삶의 활력은 Maggie에게서 느껴지는 공동체에 대한 질은 향수와 판이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Gwendolen의 활달한 성격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외에도 상류계급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류계급의 물질적 혜택이 반드시 여성의 창조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류계급의 여성일 수록 철저한 시장경제의 법칙과 엄격한 가부장제에 노출된 측면도 있다. “가정에서의 천사(angel in the house)”라든지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과 같은 빅토리아조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현저하게 작용하는 계급이 바로 상류사회라 일컬어지는 유한계급이다. 유한계급이라 해서 다 상류사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류사회의 여성이 물질적 풍요에 문화적 교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빅토리아조 가부장제의 강력한 억압체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예컨대 Miss Arrowpoint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하여 Mr. Klesmer와 결혼하려고 하자 부모로부터, 상류계급의 모든 물질적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것이 소위 ‘상류사회’의 여성현실인 것이다. 사실 상류계급의 여성은 화려한 삶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의 재산 상속자를 생산하는 책임(달만 낳아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Mrs. Hugo가 당하는 심적 고통을 상기하라!)과 가사를 지휘·관리하며, 기껏해야 문예를 즐기는(소설을 쓴다는 Mrs. Arrowpoint가 투철한 가부장제의 수호자가 아닌가?), 남편의 값비싼 소유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류계급의 여성현실에 독자적인 삶이라든지 창조적인 삶이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들 여성에게 결혼이란 자기 몸을 되도록이면 비싼 값으로 팔려는 거래에 다

5) F.R. Leavis, *The Great Tradition*(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2) 56면.

름 아니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그리하여 고급하인에 불과한 가정교사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Gwendolen에게 충고하는 Mr. Gascoigne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애야, Gwendolen아, 너의 행운이——너와 같은 처지의 여자들에게는 좀처럼 닿지 않는 행운이——너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밖에 더 할 말이 없구나. 사실 이 행운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으며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의무인게야. 하늘의 섭리로 너에게 권력과 지위가 주어진다——특히 너에게 꺼림칙한 어떤 조건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너가 갈 길은 변덕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도덕적 공무인 것이야.’<sup>6)</sup>

‘Then, my dear Gwendolen, I have nothing further to say than this: you hold your fortune in your own hands—a fortune such as rarely happens to a girl in your circumstances—a fortune in fact which almost takes the question out of the range of mere personal feeling, and makes your acceptance of it a duty. If Providence offers you power and position—especially when unclogged by any conditions that are repugnant to you—your course is one of responsibility into which caprice must not enter...

Mr. Gascoigne의 “현실적인 지혜”는 Grandcourt의 과거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접하고도 그가 귀족이며 상당한 재산의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도덕적 가치평가로 부터 제외시킨다. 성직자인 Mr. Gascoigne가 이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Grandcourt와의 결혼을 “하늘의 섭리”니 “도덕적 공무”니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장면은 빅토리아조 상류계급의 결혼이 얼마나 물질적 계산에 좌우되고 있는 가를 수준높은 방식으로 드러낸다.

경제적 몰락에 의해 Grandcourt와의 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Gwendolen은 자신이 바라던 지위와 재산을 모두 획득했지만 바로 그러한 삶에서 창조적 삶을 고갈시키는 불모성과 Grandcourt의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권위와 정복욕에 포로가 된다. 신사 중의 신사임을 자부하는 Grandcourt의 비인간적인, ‘투명’할 정도로 물화가 진척되어 있는 심리상태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영입된 봉건귀족이 자신의 욕망을 무한대로 펼치고자 하는 욕망, 뼈두부르즈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상적 삶의 애착을 넘어서는 순수한 지배·팽창욕을 본다. 이러한 Grandcourt의 성향을 제국주의 단계에 조응하는 심리적 상태로 간주함은 성급할지 모르지만 Grandcourt에게는 분명 Sir Hugo와 다른, 일상사——사소한 시기, 질투 혹은 물욕에 대한 이해관계와 인간적인 애착 등——를 넘어서선 관념적 순수성으로서의 결벽성과 지배욕이 엿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자신이 자부하듯이 ‘신사의 정수’에 해당한다면 이 작품에서 묘사된 Grandcourt의 심리와 행동양식은 빅토리아조 신사계급——이는 물론 귀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신사계급이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신사계급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상류계급의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가령 Grandcourt가 Mrs. Glasher에게서 빼앗아 Gwendolen에게 주는 목걸이의 의미를 추적해보면 그들의 관계가 전개하는 권력구조의 변화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Grandcourt의 이같은 ‘제국주의적’ 압제에 시달리는 Gwendolen의 시련은 그녀가 상류사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환상

6) George Eliot, *Daniel Deronda*(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7) 178면.

의 파괴과정이자 동시에 자신의 에고이즘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고통으로 향하는 도덕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성숙의 계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Daniel의 가르침과 격려에 힘입어 Gwendolen은 더욱고 일정한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

④ Gwendolen이 과연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독립의 물질적 조건인 경제적 능력과 아울러 그녀가 성취한 성숙의 성격과 심도에 따라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우선 Grandcourt의 돌연한 죽음 이후에 그녀에게 떨어진 재산은 결코 그녀의 노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Gwendolen이 이 재산을 갖게되는 계기는 '시련의 보수'로 나타나 있으며, 즉 어떤 교활한 책략 예컨대 도박에 의한 약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이 물론 앞서 지적한 한계를 무화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Gwendolen의 삶을 감안한다면 결정적인 결함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한편 성숙의 성격과 심도에 관해서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Gwendolen이 취하는 자세에서 엿볼 수 있겠다. Daniel로부터 헤어지는 충격을 당하고 난후 울면서도 "난 살거예요. 난 더 나아질 거예요(I shall live. I shall be better.)"라고 외치는 Gwendolen의 모습에서 Bonnie Zimmerman의 해석대로 "지치고 폐기없는 자기희생적 여성성(a tired, spiritless, self-sacrificing femininity)"<sup>7)</sup>만을 읽어내는 독법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문제에 대한 George Eliot의 깊은 통찰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빅토리아조의 엄청난 여성억압 앞에서 Gwendolen의 창조적 열기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의 작은 배처럼 언제 파묻힐지 모를 것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불안은 Gwendolen에 대한 Daniel의 지도가 여성의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거의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말의 불안과 함께 Grandcourt로부터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은 Gwendolen이 이제 영국 상류사회에 호락호락 말려들어 순종적이고 속물적인 삶을 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녀에게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시들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Maggie Tulliver의 도덕적 결단을 성숙의 징표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우선 앞서 지적한 Maggie의 강렬한 결핍감이 그녀를 Stephen Guest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Maggie가 '지방의 댄디'에 불과한 Stephen Guest의 유혹에 건잠을 수 없이 휘말려들어간 것은 뼈피부르즈와적 삶의 불모성과 편협함에 억눌렸던 감각과 성애(sexuality)에 대한 욕구가 Stephen Guest와의 만남을 통해 해방적으로 분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Stephen Guest가 아무리 속물적인 인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Tom이 갖지 못하는 풍요로운 감각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는 뼈피부르즈와의 현실과는 달리 모든 물질적 조건과 기회를 확보한 자만이 갖출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을 지녔던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4권 13장 "조류에 떠밀려(Borne Along By the Tide)"의 다음 귀절은 억눌린 성애와 감각의 분출 속에 무아지경이 된 Maggie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Maggie는 자신이 정원의 장미꽃 사이로 이끌려 내려와 굳건하고 부드러운 손길의 도움을 받아 보트 안으로 태워지고, 그녀의 발 아래 방석과 망토가 가지런하게 놓이고 그녀의 양산(그녀는 양산이

7) Bonnie Zimmerman, 앞의 글 235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다)이 그녀 위에 펼쳐짐을——이 모든 행위가 마치 갑자기 들뜨게 하는 독한 강장제의 효과와 함께 도래한 부가된 자아처럼, 그녀 자신은 전혀 의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그녀를 떠받치는 듯한 이 강한 존재에 의해 수행됨을——느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기억이 추방되었던 것이다.(464)

Maggie felt that she was being led down the garden among the roses, being helped with firm tender care into the boat, having the cushion and cloak arranged for her feet and her parasol opened for her which (she had forgotten)—all by this stronger presence that seemed to bear her along without any act of her own will like the added self which comes with the sudden exalting influence of a strong tonic—and she felt nothing else. Memory was excluded.

그러므로 Maggie와 Stephen Guest간의 실경이를 “성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a struggle for sexual power)”으로 본 Deirdre David의 관점<sup>8)</sup>은 Maggie를 억압한 요인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갈등과 몸부림이 있었다면, Maggie를 사로잡고 있는 감각적 해방의 물결과 이를 거슬러올라가 어떻게든 공동체적 일체감을 지켜보려는 도덕적 본능간의 대립·갈등이었으며 이 갈등 속에서 Tom, Lucy, Philip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연계가 승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Maggie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포기함을 뜻한다. George Eliot는 Maggie의 이같은 도덕적 선택이 참다운 여성적 삶에 전제되는 인간적 성숙의 징표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Maggie의 결단에서 느껴지는 맹목적 본능적 거부감은 봉건적 질서에 기반한 공동체적 감정의 해체를 거부하려는 응고집과 같은 격렬한 감정을 연상케 한다. 전자본주의적 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Maggie의 이같은 정서는 Floss 강을 비롯한 전원풍경 묘사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다.<sup>9)</sup> 사실 작가 자신도 Maggie의 도덕적 결단에 담긴 문제점을 심부 의식했음인지 Maggie의 죽음으로 소설을 끝낸다.

소설의 끝맺음 문제를 Maggie를 창조하고 거부했던 뽀머부르즈와 계급에 대한, 그리고 뽀머부르즈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통속소설에 대한 작가의 적의감 표현이라 본 Deirdre David의 견해는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나머지 매우 평범한 사실을 왜곡해버린 감이 있다. 이 작품의 결말은 오히려 동화적인 느낌이 들며,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리얼리즘 소설가로서는 다소 무책임한——회피적인——결말로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Maggie의 죽음을 여성문제에 대한 George Eliot 자신의 불편한 심리를 봉쇄전략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라고 보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봉쇄전략으로 인해 여성문제가 더 심도 있게 제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지고 보면 이 작품에는 형식적 구도에 안착되지 않은 휘발성 요소가 질게 깔려 일종의 반란적 목소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반란적 목소리는 여성의 “도덕적 성장과 독립”의 문제에 대한 George Eliot의 예술적 형상화를 끊임없이 혼란케 하고 방해하는 동시에 작품 전반에 걸쳐 마치 게릴라식으로 여성억압에 대한 질은 페이스스를 불쑥 도발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에 반해 *Daniel Deronda*에 나오는 Gwendolen Harleth의 경우 여성적 삶의 역경이 여주인공의 창조적, 생명적 활력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공감과 여주인공의 이기주의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비판의 균형 속에서 실감나게 묘사되어 여성의 “성숙과 독립”간의 관

8) Deirdre David, 같은 글 222면.

9) Deirdre David, 213면.



련성을 원숙한 필치로 다루었다고 하겠다. 허나 *Daniel Deronda*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작가의 객관적 거리유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Gwendolen Harleth의 묘사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여성억압구조에 대한 작가의 냉철하고 심오한 통찰과 나란히 Daniel의 어머니 Alcharisi의 절규가 용솨음치듯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George Eliot 자신이 여성문제에 관한 결코 초연할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The Mill on the Floss*에서 Maggie Tulliver의 묘사는 *Daniel Deronda*의 Gwendolen Harleth의 묘사에서 보여준 여성억압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통찰력과 예리한 사회학적 인식보다는 대체로 Alcharisi의 절규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George Eliot의 뛰어난 인식과 예술은 계급과 가부장제의 복합체가 하층중산계급의 한 여성을 어떻게 옥죄어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